

2024년도 서울시(2차) 9급 한국사(C책형)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③	①	①	③	②
6	7	8	9	10
④	①	②	④	④
11	12	13	14	15
③	④	②	②	③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②	①
[보]11	[보]12	[보]13	[보]14	[보]15
②	④	①	②	⑤
[보]16	[보]17	[보]18	[보]19	[보]20
④	②	③	②	③

※ [보]는 '보훈청 추천 시험지'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앞의 일반 시험지와 동일하고 11번부터 20번가 다릅니다.

<1번 문제 해설>

옳고 북쪽의 고구려와 계속해서 싸우는 한편 중국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372, 근초고왕 27)하기 때문이다(『삼국사기』). 이와 같은 행보는 남쪽의 마한 지역이 복속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재위 331-371, 제16대)을 전사시킨 것은 재위 26년인 371년(고구려 고국원왕 41)의 일이다.

ㄹ. 가야 연맹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어 해체된 것은 562년(신라 진흥왕 23)의 일이다.

이상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ㄷ-ㄱ-ㄴ-ㄹ'이 된다.

1 - 4세기~6세기의 주요 사건들

1.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한 후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ㄴ. 진흥왕은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ㄷ. 근초고왕은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복속시키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ㄹ. 가야 연맹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으로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됨으로써 해체되었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ㄷ-ㄱ-ㄴ-ㄹ ④ ㄹ-ㄷ-ㄱ-ㄴ

정답> ③

ㄱ. 고구려 장수왕(재위 413-491, 제20대)이 백제의 수도 한성(위례성)을 점령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은 재위 63년인 475년(백제 개로왕 21)의 일이다. 이때 백제의 개로왕(재위 455-475, 제21대)이 전사하였다(웅진 천도)(475~538, 웅진 시대 개막).

ㄴ.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 제24대)이 백제 성왕(재위 523-554, 제26대)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유역을 확보한 것은 재위 12년인 551년(백제 성왕 29/고구려 영양왕 7)의 일이고, 이어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유역까지 차지한 것은 재위 14년인 553년(백제 성왕 31)의 일이다(신주 설치, 북한산 순수비를 세운 것은 555년의 일). 백제 성왕은 진흥왕의 배신에 보복하기 위해 싸우다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북병의 기습 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554, 성왕 32)(관산성은 지금의 충북 옥천 지방으로, 『일본서기』에는 함산성으로 표기됨).

ㄷ. 백제 근초고왕(재위 346-375, 제13대)의 재위 2년(347)부터 21년(366)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마한 지역을 복속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 하면 이후 근초고왕은 재위 26년인 371년에 한강에 접한 한산(위치와 관련해 여러 설 있음)으로 도읍을

2 - 원종과 애노의 난 이후의 사건

2. <보기>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라 안의 모든 주군(州郡)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 재정이 궁핍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元宗)과 애노(哀奴)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① 견훤이 경주를 침략하고 경순왕을 옹립하였다.
- ② 당나라가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임명하고 군대를 동원하였다.
- ③ 백제 의자왕이 신라의 서쪽 지역을 공격하여 대야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켰다.
- ④ 해공왕을 마지막으로 무열왕계가 단절되었다.

정답> ①

'나라 안의 모든 주군(州郡)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 재정이 궁핍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元宗)과 애노(哀奴)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한 것은 신라 진성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사벌주는 지금의 경북 상주).

후백제의 견훤(재위 900-935)이 신라의 도읍인 경주(금성)를 침략하여 경애왕(재위 924-927, 제55대)을 죽게 하고 경순왕(재위 927-935, 제56대)을 옹립한 것은 927년의 일이다(927.11). 이 사건 직후 공산(지금의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후백제군과 신라를 도우러 온 고려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왕건의 고려군이 대패하였다(공산 전투).

오답 해설>

② 당[당 고종]이 문무왕(재위 661-681, 제30대)의 동생 김인문(629~694)을 신라왕으로 임명[책봉]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은 나당 전쟁 중이던 674년(문무왕 14) 1월의 일이다(문무왕의 관작을 삭제). 신라가 노골적인 대당 항쟁을 계속하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문무왕이 당에 형식적인 사죄사를 보내고, 김인문도 도중에 돌아가 임해군으로 봉해졌다.

③ 백제 의자왕(재위 641-660, 제31대)이 장군 윤충(?~?)을 보내 신라의 서쪽 지역을 공격하여 대야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킨 것은 642년(백제 의자왕 2/신라 선덕여왕 11)의 일이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지역으로 당시에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④ 해공왕(재위 765-780, 제36대)을 마지막으로 무열왕계의 직계 왕통은 단절되었다. 이때 신라 중대가 끝나고 내물왕계의 하대가 시작된다(통설). 하지만 신라는 해공왕 피살(780) 이후 15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져 사회가 극히 혼란해졌다.

3 - 발해의 주요 사건들

3.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ㄱ.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하였다.
 ㄴ. 정혜공주묘, 정효공주묘를 만들었다.
 ㄷ. 전성기를 맞이하여 중국인들이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 ① ㄱ-ㄴ-ㄷ ② ㄱ-ㄷ-ㄴ
 ③ ㄴ-ㄱ-ㄷ ④ ㄷ-ㄱ-ㄴ

정답> ①

ㄱ. (발해의 장군)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산둥반도의 등주]을 공격한 것은 발해 무왕 14년인 732년의 일이다.

ㄴ. 정혜 공주(737~777)는 발해 문왕(재위 737-793, 제3대)의 둘째 딸이고, 정효 공주(757~792)는 문왕의 넷째 딸이다. 정혜 공주 묘는 육정산 고분군(중국 지린성 돈화시 육정산)에 위치하며(고구려 문화의 영향), 정효 공주 묘는 용두산 고분군(중국 지린성 화룡현 용두산)에 위치한다(당 문화의 영향). 정혜 공주 묘를 만든 것은 정혜 공주 사망 시인 777년경, 정효 공주 묘를 만든 것은 정효 공주 사망 시인 792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ㄷ. 전성기를 맞이하여 중국인들이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부른 것은 발해의 제10대 왕인 선왕 대(재위 818-830, 대인수)의 일이다(발해의 전성기).

이상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ㄱ-ㄴ-ㄷ'이 된다.

4 - 무신 정변 이후 나타난 사건

4. <보기>에서 무신정변 이후 나타난 사건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ㄱ. 최충헌이 교열도감을 설치하여 권력 기관으로 삼았다.
 ㄴ. 일부 무신들은 왕실과 혼인을 시도하였다.
 ㄷ. 서방이 설치되어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이 등용되었다.
 ㄹ. 정변을 축하하기 위해 연산에 개태사를 세웠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③

무신 정변 이후 나타난 사건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ㄱ. 무신 집권자인 최충헌(집권 1196-1219)은 국정 총괄 기구인 (교열도감이 아니라)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 기관으로 삼았다(1209, 고려 희종 5). 한 국사에 교열도감이란 기구는 없다.

ㄴ. 일부 무신, 즉 정중부(집권 1170-1179)는 왕실과의 혼인을 시도한 바 있다. 또 최충헌은 강종(재위 1211-1213, 제22대)의 서녀를 취하여 아예 자신이 직접 왕실과 통혼하였다. 최우 대(집권 1219-1249)에도 최우의 사위인 김약선의 아들이 왕실과 혼인하였고, 김약선의 딸은 원종(재위 1260-1274, 제24대)의 왕비가 되었다. 최씨 집권자들은 이처럼 왕실과의 통혼을 통해 왕실과 밀착하였다. 참고로 최씨 집권자들을 포함한 무신들은 문벌 귀족 가문들과도 폭넓은 혼인 관계를 맺었고, 이들은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으로 변화하였다.

ㄷ. 서방이 설치되어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이 등용된 것은 최우 집권기인 1227년(고종 14)의 일이다. 서방은 일종의 문인들의 숙위 기구이다(~1270). 문인들을 숙위하게 하고 국정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문한 작성).

ㄹ. (충남) 논산 개태사(開泰寺)는 고려 태조 왕건(재위 918-943)이 신검의 후백제를 제압한 후(일리천 전투)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사찰이다(936, 태조 19).

이상의 <보기>에서 옳은 사건은, 'ㄴ과 ㄷ'이다.

5 - 초기 국가, 부여

5. <보기>의 사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 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춘다. 이름을 '영고'라 하였다. 이때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넣어 장사 지낸다. 사람을 죽여서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 가량이나 된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국읍에 천군을 두어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다.
- ② 국왕을 중심으로 가장 유력한 대가인 우가, 마가, 저가, 구가 등이 주요 국가 정책을 논의하였다.
- ③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④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등의 관료 조직이 있었다.

정답> ②

'12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춘다. 이름을 영고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때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넣어 장사 지낸다. 사람을 죽여서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 가량이나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는 초기 국가, 부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부여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가장 유력한 대가인 우가, 마가, 저가, 구가 등이 주요 국가 정책을 논의하였다(제가 회의). 대가들은 각 사출도*를 주관하였으며 대사자, 사자, 대사 등의 관리를 두었다.

*사출도(四出道): 부여의 지방 관할 구역을 가리킨다. 부여는 수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지방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중앙에는 가장 강력한 부족이 있고, 사방에는 그 지방에서 우세한 부족이 다스렸다. 부족장인 제가(諸加)[대가]가 관할하였는데 큰 부족으로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豬加)·구가(狗加) 등이 있었다. 처음에 제가는 부족의 대표적인 역할만 했으나 점차 귀족화되며 국가의 지배층이 되었다. 세력의 크기에 따라 수천 가(家) 또는 수백 가의 호(戶)를 지배하였다.

오답 해설>

① 국읍에 (제사장인) 천군을 두어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한 국가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천군은 신성 지역인 소도**에서 제사를 지냈다.

**소도(蘇塗):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③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국가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④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등의 관료 조직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고구려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이 있으며, 신분의 높고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6 - 고려 시대의 주요 사실들

6.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민변정도감에서 노비 소유권 소송을 처리했다.
- ② 응방을 통해 왕실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 ③ 전시과 제도를 통해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 ④ 호장은 국가에서 경제적 보수를 받지 않았다.

정답> ④

호장(戶長)은 고려 시대 향직의 우두머리로서 부호장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하였다. 지방의 실무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이다. 호장은 또한 제도적으로 문과에 응시할 수도 있었다. 호장이라는 명칭은 성종 2년(983)에 호장, 부호장과 같은 향리 직제를 마련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당시의 최고위직인 당대등을 호장으로, 장대등을 부호장으로 개칭). 그리고 호장은 외역전이라고 하여 직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외역전은 직역 세습을 대가로 세습 가능한 영업전이기도 하다.

오답 해설>

①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후기에 권세가의 대토지 불법 소유 및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처음에는 숙청되거나 실각한 권세가들의 자산을 정리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었으나 고려의 관습과 다르게 풀린 노비를 추쇄하는 등 노비제의 정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민변정도감에서는 토지와 노비 소유(권)의 소송과 관련한 일을 주로 취급하였다.

*전민변정도감: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으로,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 차례로 살펴보면, 원종 10년인 1269년, 충렬왕 14년인 1288년, 충렬왕 27년인 1301년, 공민왕 원년인 1352년(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 공민왕 15년인 1366년,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친원파)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응방(鷹坊)은 몽골에 해동청[사냥매]을 조공품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1275, 충렬왕 원년). 몽골에서 매를 보내라는 요구가 잦아 충렬왕 9년인 1283년에 응방을 관장하는 응방도감을 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응방에서 길들인 매는 몽골뿐 아니라 고려 왕실에도 바쳤다. 그리하여 응방에 속한 관원들은 왕의 권력을 배경으로 횡포가 극심하였다(부원 세력화, 부원배화, 응방은 여러 부원 기구 중 하나). 응방은 단순히 매를 잡고 사육함은 물론 원에 매를 헌납하는 행사, 왕의 사냥 행사에도 참여하고 왕과 왕비에 자주 향연을 베풀어 총애를 받는 기구였다. 따라서 면역·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전(賜田)을 받고, 수많은 노비와 소작인을 거느렸다. 자연히 왕실도 응방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참고로 충렬왕은 응방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은을 수집하여 국제 교역[무역]의 자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하였다. 응방은 폐해가 심해 폐지와 (재)설치가 반복되다 조선 중종 12년인 1517년에 이르러 평안도·함경도에만 응방을 두고 남부 지방은 매의 진상과 응방을 최종 폐지하였다.

③ 전시과 제도를 통해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있게) 지급한 것은 고려 시대이다. 전시과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것은 고려 경종 원년인 976년의 일이다(시정 전시과). 이후 목종 원년인 998년에 개정 전시과가, 다시 문종 30년인 1076년에 또 다시 경정 전시과가 시행되었다(전시과의 완성).

**전지(田地)와 시지(柴地): 전지는 말 그대로 논과 밭을 이르는 말이고, 시지는 땃나무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급했던 토지를 가리킨다. 시지는 땃나무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대개 수도인 개경 부근에 위치하였다.

7 - 충주성 전투와 공민왕의 친원파 제거 사이의 사건

7. <보기 1>과 <보기 2>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몽고군이 이르니 우종주와 유홍익은 양반들과 더불어 모두 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다. 다만 노비군과 천민들이 힘을 합하여 몽고군을 물리쳤다.

- 『고려사절요』 -

<보기 2>

6월 원나라 연호인 지정을 쓰지 않고 교지를 내렸다.

- 『고려사』 -

- ①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각종 화약 무기를 제조했다.
- ②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 ③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권문세족이 출현했다.
- ④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의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정답 > ①

<보기 1>에 '몽골군이 이르니 우종주와 유홍익은 양반들과 더불어 모두 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다. 다만 노비군과 천민들이 힘을 합하여 몽골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충주 부사 '우종주'와 판관 '유홍익'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주어진 <보기 1>은 몽골의 제1차 침입 시 있었던 충주(산)성 전투를 가리킨다(1232, 고종 19)('충주 노군의 항전'이라고도 함)*. 참고로 충주(산)성 전투는 두 차례 있었는데, 방금 언급한 것이 첫 번째이고 김윤후(?~?)가 주도한 두 번째 충주(산)성 전투는 제5차 침입 시인 1253년(고종 40)에 있었다. 이어 <보기 2>에는 '6월 원나라 연호인 지정을 쓰지 않고 교지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기철(?~1356) 등 친원파를 제거한 고려 공민왕 5년인 1356년에 있었던 일이다(『고려사』 세가 권제39, 공민왕 5년(1356) 6월 '원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역모 평정을 기념하여 사면을 베풀다').

무신 최무선(1325~1395)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각종 화약 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이후 최무선은 화통도감에서 만든 화포로 진포 대첩[해전]에서 왜구를 물리쳤다(1380.8, 고려 우왕 6). 진포는 오늘날 금강 하류 일대로 충남 서천 남쪽이다(전북 군산이라는 소수설도 있음).

*1232년 정월에 전투가 벌어짐

오답 해설>

②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된 것은 충렬왕 6년인 1280년의 일이다. 정동행성의 정식 명칭은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으로, 여기서 '정동'은 일본 정벌을 뜻하고, '행중서성'은 중앙 정부 기관인 (원) 중서성의 지방 파견 기관을 뜻한다. 일본 원정 실패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기능하였다.

③ 권문세족은 대몽 항쟁 이후인 고려 후기에 새롭게 형성된 지배 세력이다. 권문(權門)과 세족(世族)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대체로 원 간섭기**에 출현한 것으로 본다.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원종 11)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한 역사서, 『삼국유사』을 지은 것은 충렬왕 11년인 1285년의 일이다. 또 이 승휴(1224~1300)가 『제왕운기』를 저술한 것은 충렬왕 13년인 1287년의 일이다. 『제왕운기』는 단군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서사시(7언과 5언의 운율)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8 - 고려 시대의 지방 행정 정책

8. <보기>의 글이 작성된 시대의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7조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서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 요청하건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시무 28조」-

- ① 5도 양계를 기틀로 한 지방 제도를 마련하였다.
- ② 향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가작통제와 호패법이 시행되었다.
- ③ 군현을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파견되지 않는 속현으로 구분하였다.
- ④ 향·부곡·소는 향리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답> ②

7조로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서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 요청하건대 외관을 두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재상이자 문신인) 최승로(927~989)가 고려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 28조임을 알 수 있다(982, 고려 성종 원년).

향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가작통제와 호패법이 시행된 것은 조선 시대의 일이다. 오가작통제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은 제도로 촌락 주민에 대한 통제[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세종 10년인 1428년 이후 단종 연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 대에 더욱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1485, 성종 16). 그리고 마침내 속종 원년인 1675년에 윤희(1617~1680)의 건의에 따라 비변사에서 '오가작통사목'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또 일종의 신분 증명서인 호패법은 태종 13년인 1413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전국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 대상자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반 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속종 초까지 5차례나 시행하다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오답 해설>

① 5도 양계를 기틀로 한 지방 제도를 마련한 것은 현종 대(재위 1009-1031, 제8대)이다[현종 3년(1012)과 현종 9년(1018)에 대폭적으로 개편]. 이때 전국을 5도와 양계로 크게 나누었으며(광역 조직), 5도 아래에 4도호부, 8목, 주·군·현을, 양계 아래에는 진을 설치하였다(기초 조직).

③ 고려 시대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파견되지 않는 속현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현까지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 따라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몇 개의 속현을 관할하였다. 참고로 지방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조선 시대의 일이다.

④ 향·부곡·소는 주·군·현과 구분되는 고려 시대의 특수 행정 구역이다. 향과 부곡은 농업 생산에 치중하였으나 소(所)는 고려 시대에 신설된 구역으로 수공업 생산을 담당하였다. 향리[호장(戶長)]가 (주·군·현의 행정 기관을 매개로 하여)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곳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의 주민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

9 - 조선 후기의 학문

9. <보기>의 글이 작성된 시기의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느냐?
그러니 각각 자기 나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다.

-『의산문답』-

- ① 정약용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거부하고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다.
- ② 박지원은 서양 서적을 참고하여 거중기 등 건축 기계를 제작했다.
- ③ 홍대용은 청나라에 다녀와 쓴 『열하일기』에서 청 문물을 소개했다.
- ④ 이극익은 우리나라 역대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였다.

정답> ④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느냐? 그러니 각각 자기 나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출처가 『의산문답』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책에서 무한 우주론('다른 별들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과 지전설[지구 자전설]을 주장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1766, 영조 42). 이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완산 이극익(1736~1806)은 우리나라 역대 문화를 『연려실기술』에서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였다(1776, 영조 52). 『연려실기술』은 백과사전식으로 구성된 기사 본말체 사서이자 일종의 정치 야사집이다.

오답 해설>

- 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거부하고 지구 자전설을 주장한 인물은 (정약용이 아니라)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
- ② 서양 서적(『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 등 건축 기계를 제작한 인물은 (박지원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1789, 정조 13). 거중기는 수원 화성 축조는 물론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도 활용되었다.

③ 청에 다녀와 쓴 『열하일기』에서 청 문물을 소개한 인물은 (홍대용이 아니라)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 박지원은 연행사(燕行使)를 수행한 후 귀국한 직후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1780년 10월 말 귀국 후 3년에 걸쳐 완성).

*『열하일기』: 정조 4년인 1780년에 청 건륭제의 칠순연(七旬宴)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행하는 삼종형 박명원(1725~1790)을 수행하여 청 황제의 피서지인 열하까지 여행하고 돌아온 일들을 소상하게 담은 사행일기이다(일종의 여행기인 '연행일기').

10 - 세도 정치기

10. <보기>의 (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이)란 종래의 봉당 정치가 변질된 형태인 일당 전제화마저 거부하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왕정과 왕권은 이름뿐이었다. 정권은 안동 김씨 또는 풍양 조씨 등 외척의 사유물이 되었다.

- ① 인간주의, 평등주의를 부르짖은 동학이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했다.
- ② 부유한 농민들은 군포를 피하기 위해 양반 신분을 위조하거나 사들였다.
- ③ 지방민의 불만이 평안도와 삼남지방에서 민중 봉기로 표출되었다.
- ④ 노비 인구를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비종모법이 확정되었다.

정답> ④

'(가)(이)란 종래의 봉당 정치가 변질된 형태인 일당 전제화마저 거부하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왕정과 왕권은 이름뿐이었다. 정권은 안동 김씨 또는 풍양 조씨 등 외척의 사유물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세도 정치(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노비 인구를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비종모법이 확정된 것은 영조 7년인 1731년의 일이다. 노비종모법이란 아버지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그 자녀를 양민으로 삼는 법이다. 양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노비 해방에도 기여하였다.

*세도 정치기: 정조 사후, 순조-헌종-철종에 이르는 60년 간 소수 가문(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풍양 조씨, 대구 서씨, 연안 이씨, 풍산 홍씨, 반남 박씨 등 6대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를 말한다. 특히 순조, 철종 대의 안동 김씨와 헌종 대의 풍양 조씨의 세도가 강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인간주의, 평등주의를 부르짖은 동학이 수운 최제우(1824~1864)에 의해 창시된 것은 조선 철종 11년인 1860년의 일이다. 최제우는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侍天主)를 강조하였다. 참고로 시천주 사상은 제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1827~1898)에 의해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제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1861~1922)에 의해 인내천(人乃天)으로 발전하였다. 최제우는 1864년 3월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② 조선 후기에 부를 축적한 농민들[부농층]은 그 재력을 바탕으로 하여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는 방법으로 양반의 신분을 얻었다.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되면 자신과 자손의 군역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반 지배층의 수탈을 피하고 부척 축적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얻을 수 있었으며, 향촌 사회에서 나름대로 행세할 수도 있었다(신향층으로 성장). 19세기 전반 세도 정치기에는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되었다.

③ 지방민의 불만이 평안도에서는 순조 11년(1811) 흥경래의 난으로[1811.12~1812.4(음력)]으로, 삼남 지방에서는 철종 13년(1862) 임술 농민 봉기로 표출되었다. 지역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 즉 삼정의 문란[폐해]에 항거하여 전국 곳곳에서 민란이 발생하였다.

11 - 조선과 후금의 관계

11. 조선과 후금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후금은 조선에 숙질 관계를 요구했다.
- ② 조선은 후금의 사신 용골대를 참수하고 항전 의지를 보였다.
- ③ 후금은 시장을 열어 교역할 것을 조선에 요구했다.
- ④ 후금이 황제를 칭하자 조선은 명과 연합하여 선전 포고를 하였다.

정답> ③

후금은 대기근과 명과의 전쟁 등으로 부족한 물자를 조선으로부터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력이 커질수록 더욱 더 많은 물자를 조선에게 세폐(歲幣)[해마다 보내는 공물]의 명목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 부근에서 시장 교역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정묘호란 직후에는 압록강변에 중강 개시를 열었고, 병자호란 직후에는 두만강변에 회령 개시를 열었다.

오답 해설>

① 후금이 조선에 요구한 관계는 숙질(叔姪)*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이다. 정묘호란 때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1627, 정묘약조). 참고로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과 맺은 관계는 군신 관계이다(1616년 건국한 후금은 1636년 4월 (정식으로) 칭제건원하면서 국호를 대청(大清)으로 고침).

*숙질(叔姪): 삼촌과 조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② 용골대(1596~1648)는 청[후금]의 장수로 병자호란 직전인 1636년(인조 14) 2월에 사신으로 와서 청 황제의 존호를 쓰고, 군신의 의(義), 즉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용골대는 이전과 이후 고려에 사신으로 수시로 옴).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지금의 서울 송파)에서 청 태종(재위 1626-1643, 제2대, 흥타이지)에게 항복의 예**를 행하도록 안내하였다.

**항복의 예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 즉 '삼배구고두례 (三拜九叩頭禮)' 또는 '삼궤구고두례 (三跪九叩頭禮)'를 행하였다.

④ 후금이 1636년(인조 14)에 황제를 칭하고 조선에 대해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종전보다 무리한 세폐(歲幣)와 정병(精兵) 3만까지 요구하자(2월에 용골대가 사신으로 왔을 때) 조선은 청에 대해 선전 포고[선전의 교서 내림]하였다(명과 연합하지 않음)***. 하지만 준비가 없는 가운데 내린 선전 포고는 결국 이듬해 1월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1636년 3월 팔도에 하달한 교서에서 인조는 후금과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러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듯하니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평안감사 홍명구에게 보낸 문서[교서]가 마침 본국으로 돌아가던 후금 사신 일행에게 탈취되어 청 태종에게 전달되었다[이때의 선전의 교서를 '절화교서(絶和敎書)'라고도 함].

12 - 조선 후기 노비제

12. 조선후기 노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균역법 실시 이후 공노비의 신공은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노가 1필로 줄고, 비의 신공은 폐지되었다.
- ② 공노비의 신공과 양인의 균역 부담이 동일해지면서 공노비 유지의 실익이 없어졌다.
- ③ 노비의 해방과 양인의 확대가 종모법을 통해 촉진되었다.
- ④ 1894년 노비세습제가 폐지되었다.

정답> ④

노비 세습제가 폐지[혁파]된 것은 조선 고종 23년인 1886년의 일이다(1886.1)[사가노비절목(私家奴婢節目) 제정].

오답 해설>

① 조선 시대의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뉜다. 또 공노비는 다시 그들의 의무에 따라 선상노비(選上奴婢)[또는 입역노비(立役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었다. 16세 이상 60세까지의 공노비 중 선상노비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관청에 무상으로 노역에 종사하였고, 납공노비는 매년 일정액의 신공(身貢)을 바쳐야 했다. 신공은 태종 8년(1408)에 추포(麤布)로 노는 5필, 비는 4필로 규정하였다가 세종 7년(1425)에 대폭 삭감되었고, 세조 때는 노 면포 1필과 쌀 2말, 비는 면포 1필과 쌀 1말로 정해졌다(『경국대전』에 법제화). 이후 면포로 통일되어 노는 2필, 비는 1필 반을 바치도록 하였다. 사노비의 경우 외거노비도 그에 준해 상전에게 신공을 바쳤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노비의 신공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때때로 취해졌고 영조 20년인 1744년에 이르러 『속대전』에서 노비의 신공액 중 각 반 필씩 덜어주기로 한 것이 법제화되었다. 균역법 실시 후인 영조 31년(1755)에는 다시 반 필씩을 삭감, 노는 1필, 비는 반 필씩 바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영조 50년인 1774년에 비공(婢貢)을 혁파하고 단지 노에게만 1필을 바치도록 하였다.

② 영조 50년(1774) 노의 신공이 1필로 줄고, 비의 신공이 폐지되어 공노비의 신공과 양인의 균역 부담이 1필로 동일해지면서 공노비 유지의 실익이 없어졌다. 그 결과 순조 원년인 1801년에 이르러 6만여 명의 공노비가 해방되었다(순조의 명에 의해 왕실 재정의 관리를 맡아보던 내수사 및 각 궁방, 중앙 관서의 노비안이 소각되고 공노비 6만여 명이 해방되어 양민이 됨).

③ 양인 인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비종모법이 시행된 것은 영조 7년인 1731년의 일이다(노비 해방에도 기여).

13 - 독립 협회의 정책

13. <보기>의 내용을 주도한 세력이 취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말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 ①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문을 건설하였다.
- ② 태양력과 '건양' 연호를 사용하고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 ③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④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규탄하였다.

정답> ②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말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이라는 내용이 차례로 나와 있다. 주어진 <보기>는 독립 협회 주도로 열린 관민 공동회에서 결의된 6개 항의 국정 개혁안인 '헌의 6조'임을 알 수 있다[1898년(광무 2) 10월 30일](관민 공동회, 1898.10.28~11.3). 이를 통해 <보기>의 내용을 주도한 세력은 독립 협회임을 알 수 있다(1896.7~1898.12).

태양력과 '건양' 연호를 사용하고 단발령을 실시한 것은 을미개혁(이른바 '제3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5.8~1896.2) 고종 32년인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면서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정하였다(~1897년 8월 16일까지 사용). 또 이때 단발령도 시행되었다(음력 1895년 11월 15일 공포).

오답 해설>

① 독립 협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한 것은 고종 33년인 1896년 4월의 일이다(1896.4.7, 같은 해 7월 2일 독립 협회 설립 이전임) 『독립신문』은 창간 이듬해인 1897년 1월부터 한글판[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분리하여 발행되었다. 그리고 독립 협회의 주도로 독립문이 건설된 것은 광무 원년[고종 34]인 1897년 11월의 일이다(1897.11.20)(사적 제32호). 왕실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자리 부근에 세웠다.

③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주장은 헌의 6조에 규정된 내용이다(제4조).

④ 독립 협회는 광무 2년[고종 35]인 1898년 3월에 처음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열강[특히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규탄하였다(~1898.12).

14 - 러시아(포츠머스 강화 조약)

14.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은/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뿐 아니라,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 『일성록』, 영남만인소 -

- 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② 일본과 포츠머스강화조약을 맺었다.
- ③ 외교장각의 문서와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 ④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정답 > ②

'(가)은/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뿐 아니라,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항의 후손인) 이만손(1811~1891)을 소두(疏頭)로 한 1만여 명의 영남 유생들이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대하여 올린 영남만인소에 나오는 내용이다[1881.2, 고종 18](위정척사 운동의 하나인 1880년대의 개화 반대 운동). 『조선책략』은 도원 김홍집(1842~1896)은 고종 17년인 1880년에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청의 외교관인 황준헌(1848~1905)으로부터 얻어 고종에게 복명하면서 바친 책으로(1880.8), 조선에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는 외교 정책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은/는 러시아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러일 전쟁 결과 러시아는 대한 제국에서 일제의 독점적 우위권을 인정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었다(1905.9.5)(제1조).

*『조선책략』: 청의 주일 참사관 황준헌(1848~1905)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청의 초대 주일 공사인 하여장(1838~1891)의 구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당시 청은 이리(伊犁: 중국 위구르·신장 지역) 문제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서자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다. 또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에 미국과 일본 등을 끌어들이면 미국, 일본 등이 중국 편에서 함께 간섭해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황준헌에게 『조선책략』을 작성하게 하였다(조선에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정책 권장).

오답 해설 >

- 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국가는 영국이다.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거문도 사건).
- ③ 외교장각의 문서와 문화재를 약탈한 나라는 병인양요 때의 프랑스이다(1866.10~11).
- ④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진무중군 어재연(1823~1871)이 지킨 (강화도의) 광성보를 공격한 나라는 신미양요 때의 미국이다(1871.5).

**제너럴 셔먼호 사건: 고종 3년인 1866년 7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경내까지 와서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횡포를 일삼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 관민이 불태워 격침시킨 사건이다.

15 - '시일야방성대곡' 이후에 일어난 사실

15. <보기>의 사실이 나온 이후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오호라!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거짓된 위협에 겁을 먹고서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달갑게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4천년 강토와 5백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목숨을 몰아 다른 사람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남의 노예가 된 2천만 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별안간 망하고 끝났도다! 아!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여 동포여!

- ①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 ②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되었다.
- ③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개시했다.
- ④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정답> ③

'오호라!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거짓된 위협에 겁을 먹고서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달갑게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4천년 강토와 5백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목숨을 몰아 다른 사람의 노예로 만들었으니'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남의 노예가 된 2천만 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별안간 망하고 끝났도다! 아!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여 동포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2차 한일 협약, 이른바 '을사늑약' 강요에 반발하여 황성신문의 주필인 위암 장지연(1864~1921)이 작성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 [사설]이다(1905.11.20).

일본이 뤼순[여순] 군항에 있던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여 러시아와의 전쟁(러일 전쟁)을 일으킨 것은 1904년 2월 8일의 일이다(~1905.9).

*『조선책략』: 청의 주일 참사관 황준헌(1848~1905)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청의 초대 주일 공사인 하여장(1838~1891)의 구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당시 청은 이리(伊犁: 중국 위구르·신장 지역) 문제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서자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다. 또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에 미국과 일본 등을 끌어들이면 미국, 일본 등이 중국 편에서 함께 간섭해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황준헌에게 『조선책략』을 작성하게 하였다(조선에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정책 권장).

오답 해설>

- 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국가는 영국이다.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거문도 사건).
- ③ 외규장각의 문서와 문화재를 약탈한 나라는 병인양요 때의 프랑스이다(1866.10~11).
- ④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진무중군 어재연(1823~1871)이 지킨 (강화도의) 광성보를 공격한 나라는 신미양요 때의 미국이다(1871.5).

**고종 3년인 1866년 7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경내까지 와서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횡포를 일삼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 관민이 불태워 격침시킨 사건이다.

17 - (조선) 민족 혁명당

17. <보기>의 강령을 발표한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본 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원수이며 적인 일본의 침탈 세력을 박멸하여 5천년 독립 자주해 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에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

- ① 의열단을 중심으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등이 참여하여 만들었다.
- ②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었다.
- ③ 민주공화국 수립, 토지 국유화 등을 내걸고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김구 등 임시정부를 고수하려는 세력이 탈당하면서 통일전선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약해졌다.

정답> ④

'본 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원수이며 적인 일본의 침탈 세력을 박멸하여 5천년 독립 자주해 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에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 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보기>는 1935년 7월 중국 난징에서 결성된 (조선) 민족 혁명당의 당의(黨義)의 전문(前文)임을 알 수 있다. 삼균주의는 1930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된 한국 독립당의 당의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를 기초한 조소앙이 민족 혁명당의 당의 제정 의원으로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문구가 당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구 등 임시 정부를 고수하려는 세력은 탈당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족 혁명당이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계가 당권을 장악하자 이에 불만을 느낀 조소앙의 한국 독립당계가 1935년 9월 하순 이탈하였고, 1937년 3월에는 지청천계도 이탈하여 4월 조선 혁명당을 (재)결성함으로써 통일 전선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약해졌다[이른바 '민족대당(民族大黨)'으로서의 성격 상실].

오답 해설>

- ① (조선) 민족 혁명당은 의열단을 중심으로 조선 혁명당, 한국 독립당, 신한 독립당, 대한 독립당의 5당 대표 14명이 모여 결성된 민족 연합 전선의 성격을 띤 독립운동 단체이다.
- ② 민족 혁명당은 참가한 5개 단체들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당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 전선 정당이었다.
- ③ 민족 혁명당은 당의, 당강에서 밝혔듯이 민주 공화국 수립, 토지 국유화, 대규모 생산 기관의 국유화, 민주적 권리의 보장 등을 내걸고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18 - 제헌 헌법 공포 이후에 일어난 일

18. <보기>의 자료가 공포된 이후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체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 ① 제주4·3사건이 발생했다.
- ② 친일청산을 위해 '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 ③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④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정답> 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48년 7월 12일 제헌 국회에서 통과된 제헌 헌법의 전문(前文)임을 알 수 있다. 헌법의 제정 이유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같은 해 7월 17일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제헌절).

제주 4·3 사건은 미군정기였던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에서 시작되어 한라산 금족 구역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킨다. 4·3 이라는 명칭은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남로당의 '무장 봉기')에서 유래한다. '는 1948년 4월에 일어난 제주(도) 4·3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1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2000.1.12). 특별법의 명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47년 3월 1일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삼일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5,000~30,000여 명의 주민이 모였다. 이날 행사를 끝낸 군중들이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시위대가 미군정청과 경찰서가 있던 관덕정을 지나가고, 200명 정도의 군중이 시위 행렬을 구경하고 있던 도중 사건이 하나 터졌다. 오후 2시 45분경 기마경관 소속의 한 경위가 시위를 막기 위해 군중들을 헤치다가 제복교에서 관덕정으로 들어서는 길 모퉁이를 돌려 할 때 고빏길에서 서성대던 한 어린이가 타던 말의 발굽에 채였는데 경찰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버렸다. 이에 분노한 군중들이 경찰을 비난하며 몰려들었고, 기마경찰은 황급히 도망쳤다. 군중들은 도망가는 기마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고, 돌팔매질과 더불어 거리가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자,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이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응원한 경찰들과 함께 관덕정 주변의 사람들에게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년 2월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16일 국무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특별 재심 조항이 신설되고,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 근거를 명시해 명예 회복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해설>

②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가 설치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

***.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친일 기업인이었던 박흥식(1903~1994)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1949.8.31).

***반민특위의 활동을 주도할 조사 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호선된 10명의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박우경(충북),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김효석(경남), 이종순(강원), 김경배(황해, 제주)가 조사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상덕과 김상돈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③ 북한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된 것은 1948년 9월 9일의 일이다.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원칙에 따라 농지 개혁이 (실제로) 실시된 것은 1950년 3월부터이다(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6월).

※ 이하 11번부터 20번은 '보훈청 추천' 시험지의 문제들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일반 시험지의 문제와 동일하여 생략합니다.

[보] 11 - 사헌부와 중정대

11. <보기>의 밑줄 친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기관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의 감사 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1,300여 년 전 신라시대입니다. 당시 중앙관부의 하나로 설치된 사정부에서는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사헌부, 사간원에서 감사 활동을 하였으며, 조선시대의 감사 제도 중 특이한 것은 16세기 초에 생긴 암행어사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 ① 신라의 집사부 ② 발해의 중정대
- ③ 고려의 한림원 ④ 조선의 승문원

정답 > ②

'우리나라의 감사 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1,300여 년 전 신라 시대입니다. 당시 중앙 관부의 하나로 설치된 사정부*에서는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사헌부, 사간원에서 감사 활동을 하였으며, 조선 시대의 감사 제도 중 특이한 것은 16세기 초에 생긴 암행어사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보기>에서 밑줄 친 기관인 '사헌부'는 조선 시대에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기구이다. 즉 관리 감찰 기구[기관, 관청]이다.

발해의 중정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이다(즉 중정대는 발해의 감찰 기관). 3성 6부 다음에 중정대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구였다. 참고로 고려의 감찰 기구는 어사대이다(995, 성종 14).

*신라는 관리 감찰을 위하여 사정부를 두었다. 태종 무열왕 6년인 659년의 일이다.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5년인 544년에 사정부의 경(卿)을 임명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백관을 감찰하는 기능을 가진 관서가 이때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즉 감찰 업무의 중요성이 커져 659년에 사정부로 격상됨, 동시에 최고 책임자를 '영(令)'으로 상향 조정). 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한 것은 문무왕 13년인 673년의 일이다. 외사정은 행정 통제와 관리 감찰을 위해 설치한 외관직으로, 근무지는 지방[9주]이었지만 주·군의 장관 밑에 소속되지 않고 중앙의 감찰 기구인 사정부 소속의 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신라의 집사부는 최고의 중앙 행정 기구[기관, 관청]이다(13부 중 최고). 진덕 여왕 5년인 651년에 본래의 품주(稟主)를 개편하여 설치하였다. 왕정의 기밀 사무를 관장하였다(위로는 왕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행정을 분장하는 여러 관부를 거느림). 참고로 집사부(와 창부)의 전신으로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稟主)가 설치된 것은 진흥왕 26년인 565년의 일이다(집사부 설치로 651년에 폐지).

③ 고려의 한림원은 국왕의 교서 작성과 외교 문서 작성 등을 담당하던 기구이다. 문한서, 사림원, 예문춘추관, 예문관 등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④ 조선의 승문원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 즉 (중국과 일본, 여진 등 외국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담당하던 기구이다(1411, 태종 11). 외교 문서에 쓰이는 이문(吏文)의 교육도 담당하였다. 성균관, 교서원과 합칭하여 삼관(三館)이라고도 하였다.

[보] 12 -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

12. <보기>의 각 제도에 관한 설명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 수신전, 흠양전을 폐지하고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
- ㉡.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완성했다.
- ㉢. 전조를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 작황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수취했다.
- ㉣. 과전법을 처음 제정하여 수조지를 현임 및 퇴임 관료에게 지급했다.

- ① ㉠-㉡-㉢-㉣ ② ㉡-㉢-㉠-㉣
- ③ ㉢-㉠-㉣-㉡ ④ ㉣-㉢-㉠-㉡

정답> ④

㉠. 수신전, 흠양전을 폐지하고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것은 조선 세조 12년인 1466년에 시행된 직전법이다. 수신전은 관료가 사망한 후 그 처에게 수조권을 준 토지이고, 흠양전은 관료가 어린 자녀들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수조권을 준 토지이다. 그리고 직전법에서는 지급액도 과전(법)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완성한 것은 조선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 전조*를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전분6등법), 작황 정도에 따라[즉 풍흉에 따라] 9등급(연분9등법)으로 나누어 수취한 것은 조선 세종 26년인 1444년에 시행된 공법(貢法)이다.

*전조(田租): 쉽게 말해 논밭에 대한 조세인 전세(田稅)를 뜻한다. 고려 시대의 전시과나 조선 시대의 과전법에서 수조권자가 경작자에게서 받는 일종의 토지 사용료로, 경작자가 토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나 수조권자에게 조세로 바친 것이다. 공전의 조(租)는 국고에 수납되었고, 사전의 조는 당연히 사전주가 취득하였다.

㉣. 과전법을 처음 제정하여 수조지를 현임 및 퇴임 관료에게 지급한 것은 고려 공민왕 3년인 1391년의 일이다. 과전법에서는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고, 관료 사후에는 회수하였다.

이상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 된다.

[보] 13 - 백범 김구

13. <보기>의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왜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 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이다.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을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에 들여보내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했으니……

- 『백범일지』 -

-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이었으나 탄핵을 당하였다.
- ② 한인에국단을 조직하였다.
- ③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 ④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북 정치 요인 회담을 제의하였다.

정답> ①

'왜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이다.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을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에 들여보내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했으니……'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출처가 『백범일지』로 되어 있는데, 바로 백범 김구(1876~1949)가 쓴 자서전이다(1929년 상하이와 1942년 충칭에서 집필, 1947년 12월 출판).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이었으나 탄핵을 당한 인물은 우남 이승만(1875~1965)이다. 1925년 3월 23일 임시 의정원에서 임시 정부 대통령 이승만을 심판, 면직하고, 같은 날 박은식을 임시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임시 정부 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대한민국 임시 정부 공보 제42호).

오답 해설>

② 김구는 1931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의열 단체인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보] 15 - 일제 강점기 말의 정책

15. <보기>의 글이 등장한 이후 일제의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지금 조선에는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어, 겨우 3년 만에 벌써 그 지망자 10만을 헤아리게 되었으니...(중략)...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원시켜서 모두 다 군복 입혀 총 메어 저 교련하는 마당에 세워 주세요.

-『삼천리』-

- ① 조선 태형령 제정
- ② 제2차 조선교육령 발표
- ③ 여자 정신 근로령 제정
- ④ 회사령 폐지

정답> ③

'지금 조선에서는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어, 겨우 3년 만에 벌써 그 지망자 10만을 헤아리게 되었으니...(중략)...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원시켜서 모두 다 군복 입혀 총 메어 저 교련하는 마당에 세워 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육군 특별 지원 지원병제가 처음 생긴 것은 1938년 2월의 일이다. 그러다 1943년 10월에 학도 지원병제가 실시되면서부터 학생(학도)들도 모집 대상이 되었다. 이듬해인 1944년 4월부터는 징병제가 실시되었다(같은 해 8월까지 제1기 징병 검사 실시). 주어진 자료는 당시 잡지 『삼천리』의 사장이자 문인(시인)이었던 파인 김동환(1901~?)('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글이다('국방 관념과 상무열의 고취')(['삼천리』 제12권 제7호, 1940년 7월 1일).

(한국인 여성을 강제 동원한) 여자 정신 근로령이 제정·공포된 것은 1944년 8월의 일이다(1944.8.23).

오답 해설>

- ①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이 제정·공포된 것은 1912년 3월의 일이다(1912.3.18)(4월 1일부터 시행)(~1920.3).
- ②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된 것은 1922년 2월의 일이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일본 본국과 동일하게 6년으로 하였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은 제3차 조선 교육령이 제정되는 1938년 3월까지 적용되었다.
- ④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이것은 이른바 '허가제 회사령'이며,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20년 4월에 이르러서는 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폐[폐지]되었다(신고제[계출제]화됨). 일제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으로 폐지한 것이다.

[보] 16 - 박영효

16. <보기>의 (가)에 들어갈 인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일본에 파견된 (가)은/는 청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새 국기를 만들었다. 그 후 (가)은/는 각국의 외교 사절단이 참석한 각종 공식 행사장에 새 국기를 당당하게 내걸었다. 그가 귀국한 지 2개월 후인 1883년 1월 27일 정부는 (가)이/가 제작한 태극기를 국기로 삼는다고 공식적으로 반포하였다.

- ① 김옥균
- ② 민영익
- ③ 어윤중
- ④ 박영효

정답> ④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일본에 파견된 (가)은/는 청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새 국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 후 (가)은/는 각국의 외교 사절단이 참석한 각종 공식 행사장에 새 국기를 당당하게 내걸었다. 그가 귀국한 지 2개월 후인 1883년 1월 27일 정부는 (가)이/가 제작한 태극기를 국기로 삼는다고 공식적으로 반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임오군란 직후 특명 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박영효(1861~1939)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자료는 박영효가 일본에 가면서 태극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내역을 서술한 것이다(박영효를 최초의 국기 제안자로 봄). 박영효가 고안한 태극무늬의 기를 고종이 1883년 1월 "태극 주위에 4괘(四卦)를 배(配)한다"고 공포함으로써 정식 국기로 채택되었다(1886년 청에서 발간한 책에 수록된 '대청국속 고려국기'를 최초의 국기로 보는 견해 있음).

*수신사: 총 네 차례 파견되었는데 1차 수신사[창산 김기수]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인 1876년 4월에(~윤6월), 2차 수신사[도원 김홍집]는 통상 장정을 개정하여 관세를 설정하는 문제 등으로 1880년 6월에(~8월), 3차 수신사[조병호]는 관세 설정을 확정하기 위해 1881년 8월에(~11월), 마지막으로 4차 수신사[박영효]는 임오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1882년 8월에(~11월) 일본에 파견되었다. 4차 수신사의 공식 명칭은 '특명 전권대신 겸 수신사'이다.

오답 해설>

① 고균 김옥균(1851~1894)은 갑신정변을 주도한 급진 개화파의 중심인물이다.

② 윤미[죽미] 민영익(1860~1914)은 명성 황후의 친정 조카[척족]으로 처음에는 개화당의 일파로 활약하였으나 점차 보수파로 바뀐 인물이다. 보빙사**의 전권대신으로 미국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보빙사: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른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4.5). 보빙사는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1855~1884), 종사관 서광범(1859~1897)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뉴욕에서 체스터 앨런 아서 미국 대통령(재임 1881-1885, 제21대)을 접견하였다.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한 후 귀국하였다.

③ 일재 어윤중(1848~1896)은 온건 개화파 중 한 명으로, 특히 갑오개혁 때 탁지부대신으로 재정 개혁을 주관하는 등 경제 개혁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재정 전문 관료이다. 조사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조사 시찰단: 일본의 근대 문물을 배워 오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이다(1881.4~윤7). 위정척사론에 바탕을 둔 반대 여론이 심하여 암행어사 형식으로 '비밀리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정부 각 부처 및 육군, 세관, 포병 공창, 산업 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을 조사하였고, 귀국 후 국내에 개화 여론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7번 문제 해설>

로 장로교계 학교들이었다[북장로교계 학교 8개교, 남장로교계 10개교가 1938년에 폐교(북장로교계 학교인 송실 전문 학교는 이때 완전히 문을 닫음)].

*193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7회 장로파 총회에서는 결국 일제의 신사 참배 요구에 굴복하여 "우리는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며 또한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인 것을 자각한다. 따라서 신사 참배를 출선수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에 참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보] 17 - 일제 강점기 종교계의 활동

17.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천주교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② 불교에서는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대종교는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 ④ 일부 개신교계에서는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정답> ①

일제 강점기 종교계의 활동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한 종교는 (천주교가 아니라) 천도교이다(각 1920년 6월/1923년 9월). 동학의 제3대 교주 의암 손병희(1861~1922)가 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이듬해 초 (일본에서) 귀국하여 교단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오답 해설>

② 사찰령은 일제가 한국 불교를 통제하기 위하여 1911년 6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주도로 설립된 조선 불교 유신회(1920.6)에서는 총독부에 사찰령 폐지에 관한 건백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특히 1922년과 1923년에 집중).

③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종교는 대종교이다. 중광단은 북간도[동만주] 지역(왕청)에서 결성되었다(1911.3).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로 다시 개편되었다.

④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한 종교는 기독교이다(신앙 수호를 위한 항일 운동). 1935년 11월 평양 기독교계 사립학교장 신사 참배 거부 사건에서 비롯되어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1935~1945). 일제는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워 일반 신도들의 신사 참배를 본격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일부 학교와 교단에서는 굴복*하기도 하였으나 그에 저항하여 스스로 폐교하거나 '신사 참배 강요 금지 청원 운동' 또는 '신사 참배 거부 권유 운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신사 참배 거부 운동으로 폐교된 학교는 주

[보] 18 - 농지 개혁법

18. <보기>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 (나) 소유권의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 ① 토지 소유 상한선을 5정보로 하였다.
- ② 신한공사를 통해 농지를 관리하였다.
- ③ 6·25전쟁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
- ④ 농지와 과수원, 임야가 대상이 되었다.

정답> ③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보기>는 유산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농지 개혁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6월의 일이다(실제 시행된 것은 1950년 3월).

농지 개혁 시행 초인 1950년 6월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한동안 중단되었다. 그리하여 당초의 5년 상환 계획이 늦추어져서 1961년 5월 11일 '농지 개혁사업 정리 요강(農地改革事業整理要綱)'을 제정하여 1964년까지 종결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오답 해설>

① 농지 개혁법에서는 토지 소유 상한선을 (5정보가 아니라) 3정보로 하였다. 제12조에서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신한 공사가 설립되어 (일본 및 일본인의 몰수된) 귀속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군정기인 1946년 3월의 일이다(1946.3.3~1948.3.22).

④ 농지 개혁법은 산림과 임야를 제외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지닌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 매입하고 영세 농민에게 3정보를 한도로 유상 분배하는 법률로 자작농 육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또 과수원의 경우 제2조에서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장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또 제6조 2항에서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매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자영할 경우 농지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보] 19 -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

19.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친일 행위를 조사했다.
- 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였다.
- ㄷ. 조봉암이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 ㄹ.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나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ㄴ - ㄹ
- ③ ㄷ - ㄱ - ㄴ - ㄹ
- ④ ㄷ - ㄱ - ㄹ - ㄴ

정답> ②

ㄱ.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이른바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친일 행위를 조사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친일 기업인이었던 박흥식(1903~1994)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1949.8.31).

*반민특위의 활동을 주도할 조사 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호선된 10명의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박우경(충북),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김효석(경남), 이종순(강원), 김경배(황해, 제주)가 조사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상덕과 김상돈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ㄴ.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2월에 공포된 제7차 개헌인 이른바 '유신 헌법'이다. 제39조 ①항에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제47조에 임기 6년 규정)(1972.12.27).

ㄷ.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당수, 죽산 조봉암(1898~1959)이 사형에 처해진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9년 7월의 일이다(1959.7.31). 참고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ㄹ.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나자 공수 부대가 투입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9년 10월의 일이다(1979.10.16.~20). 10월 16일 부산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확대되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20일 정오에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공수 부대를 출동시켰다.

이상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ㄱ-ㄷ-ㄴ-ㄹ'이 된다.

[보] 20 -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사이의 사건

20. <보기 1>과 <보기 2>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

이번 4·19 참사는 우리 학생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규정이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교 교수들은 이 비상 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전한다.

<보기 2>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펼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①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여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가 개최되었다.
- ② 명동성당에서 열린 3·1절 기념 미사에서 각계 대표들이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한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 ③ 남북학생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이 제의했다.
- ④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를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했다.

정답> ③

<보기 1>에 이번 4·19 참사는 우리 학생 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사태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규정이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교 교수들은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학 교수단이 '쓰러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가두 시위행진을 벌인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60년 4월 25일의 일이다(1960년의 '4·19 혁명'). 이어 다음날인 4월 26일, 미국마저 자신을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이승만 대통령은 다음날인 27일에 사임서를 제출한 후 경무대를 떠남).

<보기 2>에는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군부가 꺾기만 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장면 정부 시기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1917~1979)이 주도한 군사 정변이 발생한 직후 조직된 군사 혁명 위원회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된 성명서이다[군사 혁명 위원회 의장 장도영 중장(1923~2012) 명의로 발표]. 이어 6개항의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5월 19일 군사 혁명 위원회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개칭).

남북 학생 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이 제의한 것은 1961년 5월 5일의 일이다.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 결성 준비 대회를 개최하면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남북 학생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가, 가자 北으로! 오라 南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슬로건도 이때 제출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일어난 5·16 군사 정변으로 조직 결성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관련자들은 체포되어 실형을 언도받았다.

오답 해설>

① 한일 협정 체결에 반대하여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가 서울대에서 2,000여 명의 서울 지역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결집한 가운데 개최된 것은 장면 정부 시기인 1964년 5월 20일의 일이다. 장례식의 조사는 당시 서울대 문리대(미학과)에 재학 중이던 시인 김지하(1941~2022)가 작성하였다.

② 명동 성당에서 열린 3·1 절 기념 미사에서 각계 대표들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한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3월 1일의 일이다. 서울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야당) 인사들이 발표하였으며, 선언문에서 긴급 조치 철폐, 민주 인사 석방, 의회 정치 회복, 대통령 직선제 요구, 사법권 독립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 또는 '명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④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가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를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6월 민주 항쟁 때의 일이다. '호법반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서 '6·10 국민 대회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항쟁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나왔다(1987.6.10~29).

- 이 상 -